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세 영¹⁾

임 혜 은²⁾

이 은 경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이화사회과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 자료는 전국 대학생(남학생: 211명, 47.7%) 441명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해 대학생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되었다($M = 22.22$, $SE = 2.14$). 연구결과,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직접적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질수록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며, 이는 곧 전위된 공격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무고한 타인을 향한 왜곡된 공격행동의 배경에는 자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인 수치심과 타인이 주시하는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현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안이 내재되어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자아의 회복과 사회불안의 극복을 통해 남녀 대학생 모두의 전위된 공격행동을 중재하도록 돕는 상담과 치료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대학생,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

* 2019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3) 교신저자 :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E-mail: leg6180@gmail.com)

I. 서론

한국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원, 2016). 이를 대변하듯 한국에서는 2003년 부산의 묻지마 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묻지마 범죄들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그 피해건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양상과 수위마저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달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 이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무고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지기에 단순히 ‘무동기 범죄’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취업준비 중이던 대학생이 돌로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잠실역 묻지마 폭행사건과 같이 세상에 대한 절망감과 사회적 적대감에서 기인한 묻지마 폭력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범죄학에서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뒤떨어졌다고 느끼거나 사회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다양한 사회적 불안요인들로 인해 생긴 막연한 적개심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불특정 대상에게 표출하는 극단적인 공격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동기 범죄가 아닌 무차별 대상의 증오범죄 또는 분노전가형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천정환, 2016).

이와 같은 묻지마 범죄는 흔히 분노를 유

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고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공격성을 의미하는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분노반추, 보복계획, 전위된 공격행동 중에서도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해당되는 분노반추와 보복계획을 제외하고,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적 요인에 해당되는 ‘전위된 공격행동(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전위된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선행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을 20대 대학생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고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위치를 확립해나가는 성인진입기에 해당된다(Erikson, 1968). 이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로 수많은 사회적 변화와 갈등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때 사회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성주, 이영순, 2013;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Strahan, 2003), 이 시기는 낮은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큰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큰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잠실역 묻지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취업준비 대학생이었음을 감안해볼 때 대학생 시기의 전위된 공격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사회심리적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위된 공격행동은 해소되지 않은 억제된 분노를 무고한 상대에게 대리 표출하는 부적

응적 행위인 만큼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위축된 자아성향과 연관성이 깊다. 특히 총체적인 자기(self)에 대해 만성적으로 부적절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자의식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은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방식을 동기화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남기숙, 2002). 이러한 수치심은 대개 공격성의 하위개념인 분노나 적대감 그리고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누리, 이정윤, 2015; 안지현, 이승연, 2013; 이진, 송미경, 2017; 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hall, & Gramzow, 1996). 이처럼 자신에 대해 손상된 지각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에 대한 위축된 감정과 부적절한 평가가 만성화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유발된 분노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억제하였다가 억제된 분노가 누적됨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위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드러나게 된다(김미림, 홍혜영, 2013; 임혜은, 한세영, 2016; 황지연, 2014; Tangney et al., 1992).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느낌, 무언가 부족하다는 자기지각,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의존적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자기개념으로 대인관계 또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기인하는 위축된 사회적 자기정서이다(Scheff, 1988). 이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가정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하는 의식으로(Hirsch & Clark,

2004) 타인에 의해 관찰되거나 평가되어지는 사회적 노출상황에서 더욱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의미하는 ‘사회불안(social anxiety)’ 개념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Gilbert & Miles, 2000; Gilbert & Trower, 1990; Lutwak & Ferrari, 1997). 수치심이 높을수록 회피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Kaufman, 1974)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회피와 내적불안이 함께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김성주, 이영순, 2015; 박가현, 홍혜영, 2013; 심현진, 권해수, 2013; 오하연, 박경, 2017; 이연규, 최한나, 2013; Harder, 1990).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 역시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Matos, Pinto-Gouveia, & Gilbert, 2013).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수진, 최영희, 2011).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이나 타인을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과소평가 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 예민하고 경계심이 높아 타인으로부터 비난이나 평가를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며 통제하는 등 주로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된다(김은정, 원호택, 2000; 정미정, 정현희, 2002; 조용래, 2006; Beck, Emery, & Greenberg, 1985; Clark & Arkowitz, 1975). 서민채와 박기환(2013)은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 역시 문제해결적인 대처보다는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회불안과 전위 공격성 간의 정적상관을 암시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강렬한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Alden & Wallace, 1991; Leary, Kowalski & Campbell, 1988) 고통스러운 불안상태를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작동시킴과 동시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회피경향성을 기저로 하여 억눌린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김여흠, 이윤주, 2013; 정호준, 2016; 정희진, 2015; Baumeister, 1990). 사회불안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다소 부족하나 위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사회불안이 유발시킨 억눌려진 분노가 한계에 도달하면 전위된 공격행동과 같이 회피적인 대처방식으로 부적절하게 표출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성은 선천적이면서 후천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상관이 있는 변인인 만큼 성에 따라 수치심, 사회불안, 그리고 전위된 공격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치심에 있어 Lewis(1971)는 남성과 여성의 인지양식이 달라 여성이 남성보다 수치심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남녀 청소년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다원, 방희정, 옥정, 2015). 사회불안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거나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Ginsburg, La Greca, & Silverman, 1998). 이에 대해 La Greca와 Lopez(1998)는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 높으며, 이는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중요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위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나 대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수치심과 같은 자신의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 자신의 약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Jakupcak, Tull, & Roemer, 2005; Kuebli & Fivush, 1992). 특히 남성들은 수치심과 같은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며,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기에(Tangney, 1990) 그러한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견디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치심이 드는 감정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 억제를 많이 하며(Liu & Iwamoto, 2006), 회피하거나 다른 보상적인 행동을 취하는 식의 전투도피 반응을 보인다(Krugman, 1995). 이처럼 수치심과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의 성차가 예상되나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한 성차에 초점을 맞춘 연구나 고찰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치심,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 간의 관계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회불안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 때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나친 불안과 좌절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내적분노를 유발시키게 된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개인은 당면한 상황을 기본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어 사회불안으로

인해 유발된 분노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연합하여 분노상황을 회피하고 분노감정을 억제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억눌려진 분노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지닌 사회적 회피 경향성으로 인한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부적절한 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 매커니즘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사회불안이라는 사회심리요인을 매개로 하였을 때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위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회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가정하여 이론모형을 설정하였으며(그림 1), 대안모형으로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모형이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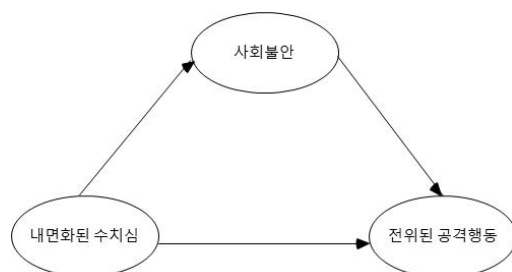


그림 1. 이론모형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441명(남학생: 211명, 47.7%)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온라인 리서치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조사는 2017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22($SD = 2.14$)세였으며, 서울(137명, 31.1%)과 경기도(104명, 23.6%)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든 척도는 대학생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은 Cook(1989)이 개발한 수

치심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혜림(2005)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SS는 부적절감(10문항), 공허감(5문항), 자기차별(5문항), 실수불안(4문항) 등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 자존감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지는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ISS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관련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적절감의 경우,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공허감의 경우,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감과 같다.”를 들 수 있다. 또한 자기차별은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실수불안은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려 드는 것 같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대학생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α)는 부적절감 .92, 공허감 .91, 자기차별 .83, 실수불안 .83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97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La Greca와 Lopez(1998)의 청소년 사회불안척도(SAS-A)를 양재원, 양윤란과 오경자(2008)가 한국판으로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를 사용하였다.

사회불안척도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 New: SAD-N, 5문항),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 General: SAD-G,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경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걱정이 든다.”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 불안의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잘 아는 사람들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 대학생들이 평소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α)는 부정적 평가 .93,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86,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83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전위된 공격행동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가 개발한 전위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이하나(2009)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위 공격성 척도는 감정적 요소인 분노반추(anger rumination), 인지적 요소인 보복계획(revenge planning), 행동적 요소인 전위된 공격행동(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위공격성의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제외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전위된 공격행동 8문항을 사용하여 전위공격성의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전위된 공격행동의 문항의 예는 “나는 화가 나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를 들 수 있다. 원 척도에서의 7점 Likert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하위차원이 없는 전위된 공격행동 변인은 3개의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항 꾸러미를 사용한 이유는 개별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하기 쉽고 개별 문항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문항 꾸러미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같은 수준에서 반영할 때 꾸러미 효과가 최대화되기 때문에 문항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을 묶었다(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본 연구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의 잠재변인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IBM Co., Armonk, NY)과 AMOS 21.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살펴 보았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의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한 후,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방식을 취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의 차이와 RMSEA를 고려하여 가장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자료를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연구모형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 간의 구성개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변인인 실수불안이 사회불안의 하위변인들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수불안 변인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 잠재변인 안에서 부적절감과 자기차별, 사회불안 잠재변인 안에서 새로운 상황 회피와 불안,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각각의 측정변

인들 간의 오차변수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여 2개의 수정지수를 사용한 후 다시 수정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이 52.727(df = 22), $\chi^2/df = 2.397$ GFI = .974, TLI = .983, CFI = .989, RMSEA = .056(.037 ~ .076)의 결과를 보였다. 즉, 모두 준거기준을 충족시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구성요소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나 잠재변인신뢰도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한편 각 잠재변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와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다중상관계수(r^2)의 값이 작게 나타났다. 즉, 각 요인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출지수(variance extracted)나 잠재변인신뢰도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표 1.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값

(N = 441)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잠재변인 신뢰도	분산추출지수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절감	1.000	.931	.049	19.000***		
	공허감	1.164	.867	.142	23.609***	.968	.909
	자기처벌	1.068	.928	.058	25.063***		
사회 불안	부정적 평가 두려움	1.000	.941	.062	15.177***		
	새로운 상황 회피와 불안	.724	.655	.335	14.364***	.906	.767
	일반적 상황 회피와 불안	.769	.778	.185	17.890***		
전위된 공격행동	전위된 공격행동 1	1.000	.880	.095	9.263***		
	전위된 공격행동 2	.754	.856	.068	21.880***	.957	.881
	전위된 공격행동 3	.900	.819	.130	20.725***		

p < .001.

표 2. 잠재변인 상관관계와 분산추출지수

(N = 441)

잠재변인	1	2	3
1. 내면화된 수치심	.909		
2. 사회불안	.747***	.767	
3. 전위된 공격행동	.551***	.486***	.881
평균	1.854	2.047	1.471
표준편차	.592	.654	.534

Note. 대각선 굵은 글씨는 분산추출지수임

p < .001.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표 2).

2.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이론모형(부분매개 모형)과 대안모형(완전매개 모형) 사이에 경합을 통해 연구모형을 선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된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분해를 살펴 보았다.

연구모형 선택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관한 모형으로 이론모형(부분매개 모형)과 대안모형(완전매개 모형)으로 각 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론모형이 대안모형

보다 χ^2 의 설명력이 크고, 다른 적합지수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모형(부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표 3).

연구모형의 평가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이 52.727($df = 22$), $\chi^2/df = 2.397$ GFI = .974, TLI = .983, CFI = .989, RMSEA = .056(.037 ~ .076)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그림 2). 또한 대학생의 내재된 수치심, 사회불안,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표 4, 그림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beta = .430$, $p < .001$)을 미치는 반면, 사회불안에 영향($\beta = .919$, $p < .001$)을 미치고, 사회불안이 전위된 공격행동($\beta = .139$, $p < .05$)으로 간접적으로

표 3. 이론 모형과 대안모형 비교

(N =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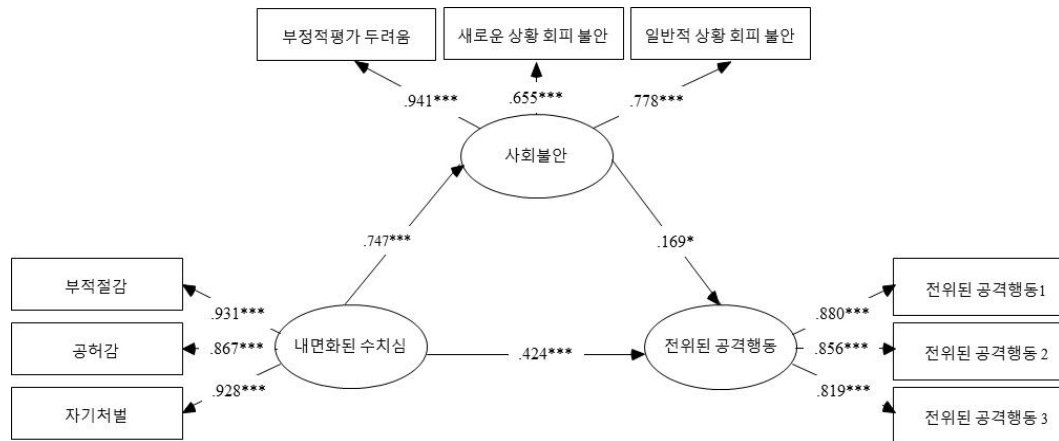
model	NPAR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Concept model(A)	23	52.727	22	.974	.983	.989	.056(.037~.076)
Nested model(B)	22	85.524	23	.958	.966	.978	.079(.061~.097)
A:B	$\chi^2_B - \chi^2_A = 32.797$			$df_B - df_A = 1$		$p = .000 > p = .05$	

표 4. 잠재변인의 경로 분석

(N = 441)

잠재변인의 경로	B	β	S.E.	C.R.
내면화된 수치심 → 전위된 공격행동	.430	.424	.076	5.666***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919	.747	.053	17.270***
사회불안 → 전위된 공격행동	.139	.169	.062	2.245*

* $p < .05$. *** $p < .001$.



* $p < .05$. *** $p < .001$.

그림 2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살펴본 결과, 내재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56%였고, 내재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전위된 공격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2%였다.

연구모형의 효과성 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부분매개 모형에 대해

내재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효과성을 분해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내재된 수치심은 직접적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beta = .426, p < .001$), 동시에 사회불안을 통해 전위된 공격행동에 간접적인 영향($\beta = .126,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분해

(N = 414)

잠재변인의 직간접 경로	Bootstrapping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 전위된 공격행동	.424***	.126*	.550***
내면화된 수치심 → 사회불안	.747***		.747***
사회불안 → 전위된 공격행동	.169*		.169*

* $p < .05$. *** $p < .001$.

3.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

대학생의 내재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개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연구모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교차타당화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불안($t = -2.07, p < .05$)과 전위된 공격행동($t = -3.26, p < .01$)에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발생한 남녀를 기준으로 자료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 대학생의 성에 따라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 모형은 측정제약 모형 및 구조공분산제약 모형과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같은 모형으로 밝혀졌다. 즉, 연구모형에서 비제약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으며($\Delta\chi^2 = 4.282; \Delta df = 6; p = .639$), 모형의 측정가중치와 구조공분산을 모두 같다고 제약한 구조공분산제약 모

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다($\Delta\chi^2 = 7.157; \Delta df = 10; p = .711$). 이들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구조공분산제약 모형(C)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90이상($GFI = .958, TLI = .985, CFI = .989$)이고, RMSEA도 .037(.021~.051)로 역시 좋은 모형(close fit)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모형은 측정가중치, 구조공분산이 남녀 집단 간 동일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재학 중인 성인진입기 남녀를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사회불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구조방정식 모형의 교차타당성

(N = 441)

Model	NPAR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	46	79.116	44	.962	.980	.988	.043(.027~.058)
B	40	83.398	50	.959	.983	.988	.039(.023~.053)
C	36	86.273	54	.958	.985	.989	.037(.021~.051)
D	18	2967.343	72	.304	.000	.000	.303(.293~.312)
A : B		$\chi^2_B - \chi^2_A = 4.282$	$df_B - df_A = 6$			$p = .639 > p = .05$	
A : C		$\chi^2_C - \chi^2_A = 7.157$	$df_C - df_A = 10$			$p = .711 > p = .05$	
B : C		$\chi^2_C - \chi^2_B = 2.875$	$df_B - df_A = 4$			$p = .579 > p = .05$	

note: A: Unconstrained Model, B: 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C: Constrained Model: Structural Covariance, D: Independence Model

첫째,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은 전위된 공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이 공격성이나 폭력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취약한 심리적 요인의 하나라고 주장한 Velotti, Elison과 Garofalo(2014)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높은 전위 공격성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임혜은, 한세영, 2016; 황지연, 2014)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강한 경우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정미라, 2010)를 함께 고려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한 분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이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대학생은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평가하는 취약한 자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은 분노의 대상에게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가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분노와 공격성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만 채 해소되지 않고 남은 분노나 공격성은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전위된 공격행동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수치심의 회피적인 대처방식인 것이다.

둘째,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큰 대학생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며, 이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황 또는 새롭고 낯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에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및 새로운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으로 인해 내면의 분노를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회하거나 회피적인 대처방식으로 표현하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김성주, 이영순, 2015; 박가현, 홍혜영, 2013; 심현진, 권해수, 2013; 오하연, 박경, 2017; 이연규, 최한나, 2013; Matos, Pinto-Gouveia, & Gilbert, 2013), 사회불안의 측면인 회피와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보고한 서민재와 박기환(2013)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취약한 자아 상태에 놓인 대학생은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게 되는 사회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그로 인해 타인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예민함은 더욱 높아져 타인으로부터 비난이나 평가를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본인의 분노와 적대감을 그 유발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자아의 문제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느끼는 불안이라는 정서문제를 유발하고 나아가 분노유발과는 무관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뒤튼린 형태의 공격행동을 낳게 되는 수치심과 전위된 공격행동 간의 매커니즘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위공격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분노반추나 보복계획과 같은 정서나 인지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전위된 공격행동에 집중함으로써 분

노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공격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위공격성의 개념에 분노반추나 보복계획 등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이 포함된다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라는 자아와 정서적인 측면의 변수가 공격적 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인지적 측면을 배제한 전위된 공격행동만을 포함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구체화된 행위로서의 공격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크고 이러한 손상된 자아로 인해 사회불안이 큰 경우,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음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과 무관한 다른 누군가에게 화풀이 행동, 즉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보복감정이나 계획과 같은 정서적, 인지적 측면까지 포함했던 기존의 전위공격성에 대한 연구와 달리 실제로 무관한 타인을 향해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 수치심과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 중 또 하나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사회불안의 매개적 역할이다. 공격성의 많은 측면이 취약한 자아, 그 중 수치심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져 온 바 있다(Velotti et al., 2014; Stuewig, Tangney, Heigel, Harty, & McCloskey, 2010). 이를 바탕으로 수치심이 대인관계상황에서 어떠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격적 행동 중에서도

갈등대상자가 아닌 무관한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밝혀진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유사한 계층과 생활지역의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생활하던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게 된 성인진입기의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의미는 눈여겨볼 만하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큰 개인은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 또한 크게 지각하며, 이를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노출함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된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결과가 유의하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어 사회불안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기제로 항상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사회불안에서 전위된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가 크게 높지는 않으며, 향후 사회불안과 전위된 공격행동과의 상관은 좀 더 심층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성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과 공격성, 각각의 변인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성차를 보인 것과는 다소간 다른 결과이다(신다원 등, 2015; Ginsburg, La Greca, & Silverman, 1998).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이 클 경우 사회불안이 높고 이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지 않은 무관한 타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불안과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해석하면, 여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남학생에 비해 높으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이 전위된 공격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경로와 설명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어 남학생이 수치심과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여학생에 비해 다소 낮으나 그들 역시 수치심과 사회불안을 경험한다면 전위된 공격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은 전위된 공격행동을 직접 예측하며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 경우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전위된 공격행동이라는 왜곡된 형태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적 기제를 알려주는 결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해 우회적인 방식의 전위된 공격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내적과정을 탐색해서 나타냈는데 의미가 있다. 나아가 각각의 변수의 성차는 상당히 보고된바 있으나, 세 변수간의 매개적 관계는 성차 없이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대학생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증재나 개입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내적 기제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갈등당사자가 아닌 타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전위공격성은 마치 무동기범죄처럼 인식되어 왔으나, 전위공격성을 나타내는 개인의 자아나 정서를 이해한다면 이는 무동기가 아니라 장시간 축적되어 온 심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격성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다양화되는 성인진입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위된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탐색,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전위된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신의 자아와 관련된 요인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인 요인인 사회불안의 역할을 밝힌 점 또한 의미 있는 일로, 대학생의 전위된 공격행동의 유발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에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권지원 (2016. 7. 30). 성인 10명 8명 “묻지마 범죄 피해 대상 될까 불안”. *메디컬 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1658>에서 2017년 7월 25일 인출
- 김누리, 이정윤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

- 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253-270.
- 김미림, 홍혜영 (2013).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35-156.
- 김성주, 이영순 (2013).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919-1938.
- 김성주, 이영순 (201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99-216.
- 김여흠, 이윤주 (2013).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안, 공감, 사회적 기술,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델 검증. *상담학연구*, 14(3), 1587-1604.
- 김은정, 원호택 (2000). 안전행동의 감소가 사회공포증 집단의 불안과 부정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09-426.
-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 문제. *심리과학*, 11(1), 35-52.
- 박가현, 홍혜영 (2013).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4), 51-64.
- 서민재, 박기환 (2013).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이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 신다원, 방희정, 옥정 (2015).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63-87.
- 심현진, 권혜수 (2013). 대학생의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709-3722.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 (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 오하연, 박경 (2017).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 335-354.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신의학*, 33(2), 305-312.
- 이연규, 최한나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대인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2), 21-42.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에,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진, 송미경 (2017).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방

- 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09-428.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은, 한세영 (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7(4), 129-143.
- 정미라 (2010).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정, 정현희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정호준 (2016). 집단따돌림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표상, 분노표현, 추론편향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진 (2015). 여대생의 사회불안, 분노억제와 우울 및 폭식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과 발표상황의 불안반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05-219.
- 천정환 (2016). 한국형 문지마 범죄 담론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복지연구*, 43, 175-214.
- 황지연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en, L. E., & Wallace, S. T. (1991). Social standards and social withdrawa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1), 85-10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doi:10.1037/0033-2909.103.3.411
- Baumeister, R. F. (1990). *Anxiety and deconstruction: On escaping the self*. In Self-inference processes: The Ontario symposium (Vol. 6, pp. 259-291). New York: Erlbaum.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approach*. New York: Basic.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1), 211-221.
- Cook, D. R. (1989). *Internalized shame scale (ISS)*. University of Wisconsin, Stout.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rikson, E. (1968). *Youth: Identity and crisis*. NY: WW.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doi:10.2307/3150980
- Gilbert, P., & Miles, J. N. (2000). Sensitivity to social put-down: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shame, social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self-other bla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4), 757-774.
- Gilbert, P., & Trower, P. (1990). *The evolution and manifestation of social anxiety*. In W. Ray (Ed.), Social anxiety. shyness and embarrassment: Perspectives from social psychology (pp. 144-17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nsburg, G. S., La Greca, A. M., & Silverman, W. K. (1998). Social anxiety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Relation with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3), 175-185.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SE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770-842.
- Harder, D. W. (1990). Additional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the Harder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 measure of shame and guilt proneness. *Psychological Reports*, 67(1), 288-290.
- Hirsch, C. R., & Clark, D. M. (2004). Information-processing bias in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799-825.
- Jakupcak, M., Tull, M. T., & Roemer, L. (2005). Masculinity, shame, and fear of emotions as predictors of men's expressions of anger and hostility.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6(4), 275-284.
- Kaufman, G. (1974). The meaning of shame: Toward a self-affirming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6), 568-674.
- Krugman, S. (1995).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shame*. In R. Levant & W.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91-128). NY: Basic Books.
- Kuebli, J., & Fivush, R. (1992).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past emotions. *Sex Roles*, 27(11), 683-698.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eary, M. R.,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3), 308-321.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iu, W. M., & Iwamoto, D. K. (2006). Asian American men's gender role conflict: The role of Asian value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7(3), 153-164.
- Lutwak, N., & Ferrari, J. R. (1997). Shame-related social anxiety: Replicating a link with various

- social interaction measures. *Anxiety, Stress, and Coping*, 10(4), 335-340.
- Matos, M., Pinto-Gouveia, J., & Gilbert, P. (2013). The effect of shame and shame memories on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anxiet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0(4), 334-34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cheff, T. J. (1988).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3), 395-406.
- Strahan, E. Y. (200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2), 347-366.
- Stuewig, J., Tangney, J. P., Heigel, C., Harty, L., & McCloskey, L. (2010). Shaming, blaming, and maim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moral emotions, externaliza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91-102.
-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02-111.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angney, J. P., Wagner, P.,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Velotti, P., Elison, J., & Garofalo, C. (2014). Shame and aggression: Different trajectories and implic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4), 454-461.

1 차원고접수 : 2019.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9. 12. 06.

최종게재결정 : 2019. 12. 17.

The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on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Late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Han, Sae-Young¹⁾

Lim, Hye Eun¹⁾

Lee, Eun Gyoung²⁾

¹⁾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²⁾Ewha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on the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of late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441 late adolescents recruited from universities (M age = 22.22 yrs; SD = 2.14) in nationwide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or adolescents and were analyzed using SEM. We utilized the hypothesized mediation model, which includes paths from adolescents' internalized shame to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social anxie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the hypothesized mediation model yielded an acceptable model fit, with all hypothesized path coefficients found to be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re adolescence internalized shame, the greater their tendency to experience social anxiety and display higher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t was also found that gender difference didn't exist in the structural model.

Keywords: adolescents, internalized shame, social anxiety,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